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국제 안전보건 동향

2019. 6. Vol. 462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



Contents

사고사망 재해예방

I	일본, 과로사 방지에 대한 접근법	03
II	국제, 10대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 첫 단계 : 안전교육의 중요성	07
III	독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산업안전보건 경향 예측보고서 발표	10
IV	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	13
	• 필리핀, 안전한 학교를 위한 납 없는 페인트 사용의 중요성 강조	
	• 필리핀 노동부,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법의 중요성 조명	
	• [환경 보존] 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안	

일본, 과로사 방지에 대한 접근법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11월을 ‘과로방지 캠페인의 달’로 지정하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2000년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한 이후 2018년 과로방지 캠페인을 시행하기까지 일본의 과로사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탐구함¹⁾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에 대한 개요

○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 » 2019년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1위는 멕시코(2,257시간), 2위는 코스타리카(2,121시간)였고, 한국은 3위(2,024시간)를 차지함.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은 19위(1,710시간)였으며, 독일은 1,356시간으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²⁾
- »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장시간 근로(주 49시간 이상) 비율이 각각 30%와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은 연평균 근로 시간 대비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음³⁾
- » 일본에서는 높은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로사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과로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중임⁴⁾

○ 과로사에 대한 정의 및 기준

- » 후생노동성은 과로사 등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과도한 업무로 뇌혈관질환·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사망
 - 업무에 따른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신장해를 받아 자살
 - 사망까지 이르지 않으나, 뇌혈관질환·심혈관계질환, 정신장해를 유발
- » 일본의 산업재해로 인한 과로사 인정기준은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외·휴일 근로가 월 45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업무와 질환 간의 관련성 역시 비례하는 것으로 봄
 - 또한 발병 직전 월 100시간 초과 혹은 2~6개월간 월평균 8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가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 과로사에 대한 객관적 정의 및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의학적 분석과 정책적 접근을 진행해 왔음

1) https://www.mhlw.go.jp/stf/newpage_04526.html

2) 2018년도 기준, 출처 :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l>

3)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databook/2018/ch6.html>

4) <https://www.mhlw.go.jp/stf/seakunitsuite/bunya/000013852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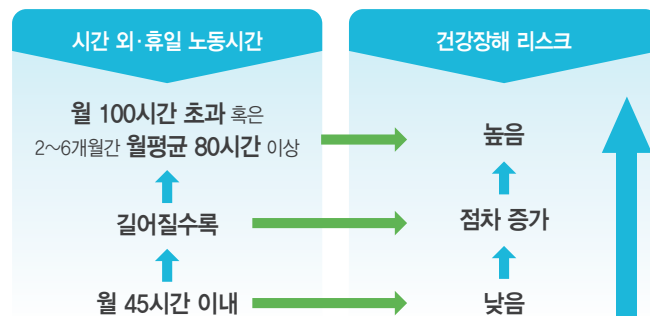
5) 일본에서는 過勞死 등으로 표현하여 과로사 및 과로자살을 포함해서 ‘과로사 등’이라 표현함(이하 기사에서는 과로사로 표현)

❖ 과로사에 대한 의학 및 정책적 접근



○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분석⁶⁾

- » 과로사를 처음으로 제기한 우에하타 테쓰노조(Tetsunojo Uehata)의 논문 ‘과로사 발병 연결요인에 대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과로사 원인으로 반복된 만성 및 급성 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휴일 근로, 작업 부담감 및 높은 출장 빈도가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과로사 문제가 널리 인식됨
- » 일본 산업의학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상혈압을 가진 노동자 36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유해환경, 근로형태, 근로시간, 수면시간, 휴일, 업무 중 신체활동 시간 등을 조사했을 때 94명(26.0%)으로부터 수축기 혈압 상승이 관찰됨.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수면시간, 휴일로 구분 후 조사했을 때 근로시간이 길거나 수면시간 또는 휴일이 적을수록 혈압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후생노동성은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시간외·휴일 근로시간과 건강장해 위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시간외·휴일 근로시간과 건강장해 리스크 관계 기준

○ 과로사에 대한 제도적 접근⁷⁾

- » 2000년 7월 일본 대법원에서 최초로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한 후 2000년 12월 산재 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과로사에 대한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함⁸⁾
- » 2014년 일본에서는 ‘과로사방지대책추진법’을 시행하여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세 가지 주요목표를 설정함
 - 1 2020년까지 주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사업장(고용)을 5% 이하로 낮춤
 - 2 2020년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70% 이상 부여
 - 3 2017년까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사업장 비율 80% 이상 확대
- » 후생노동성은 해당 법 제5조에 따라 매월 11월을 과로방지 캠페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력 전개

6) https://www.jniosh.johas.go.jp/groups/overwork/ronbun_c.html#19

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05655.html>

8) <https://www.mhlw.go.jp/houdou/0112/h1212-1.html>

과로사 해결을 위한 과로방지 캠페인

과로방지 캠페인 개요

- » 일본 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대책추진법’에 따라 과로사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1월을 ‘과로사등방지계발월간⁹⁾’이라 지정,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로방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중점으로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도 동시에 진행함¹⁰⁾
- » 2018년 과로방지 캠페인부터는 ‘과로사방지대책추진법’의 주요 목표와 더불어 5개 목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함
 - ① 출·퇴근시간 유연제
 - ② 장시간 근로 감소·과중근로에 따른 정신건강 방지대책
 - ③ 과로사 중점 업종에 대한 감독
 - ④ 출·퇴근시간 유연제에 따른 인력 부족 대비 청년, 노인, 장애인 채용
 - ⑤ 성희롱·직권남용¹¹⁾ 예방 및 노력

과로방지 캠페인 중 각 주체의 노력

정부 차원 실천사항

- ① 근로조건, 일하는 방법, 성희롱 및 직권남용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 ② 과로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③ 사업주·노동자 입장에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전파
- ④ 설문조사 실시 및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업무과중 분석 보고서 발간
- ⑤ 출·퇴근시간 유연제* 적극 권장
- ⑥ 과로사 특별근로감독

*출·퇴근시간 유연제

- » 일본 정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기업들의 출·퇴근시간 유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 출·퇴근 유연제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노동자의 건강 및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출·퇴근 시간 유연제 사례〉

예)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정
20:00에 근무 종료할 경우



근무 종료 시간에 관계없이 설정 시간 이상 휴식시간 확보

노동자 차원 실천사항

- ① 스트레스 자가 점검 및 관리
- ② 신체 이상 감지 시 즉각 의료 상담
- ③ 노동기준법 제36조에 따른 노사협약으로 정해진 초과 근로시간 인지

사업주 차원 실천사항

- ①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에 대해 정확히 파악
- ② 주 60시간 이상 근무노동자 제로화
- ③ 노동자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 지원
- ④ 성희롱 및 직권남용 예방

9) 원문: 過勞死等防止啓発月間

10) https://www.mhlw.go.jp/stf/newpage_04526.html

11) 원문: パワーハラスメント(Power harassment)로 직장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 과로방지 캠페인에 대한 결과 및 환류

- » 2014년 최초로 캠페인 실시한 이래, 후생노동성은 매년 ‘과로사 방지대책 백서’를 발간하여 각 연도별 캠페인 결과를 고지하는 한편,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다음 연도 과로방지 캠페인에 반영함
- » 2016년에는 운송업 및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17년부터 범위를 점차 확장하여 교직원, IT산업, 의료업 종사자 등 점차 대상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2018년 과로방지 캠페인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 » 후생노동성은 2018년 과로방지 캠페인 기간(11월) 중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최근 공표함

		2018년 11월	2017년 11월
감독지도 실시사업장	감독 실시 사업장 수	8,474	7,635
	노동기준법 등 법령 위반	5,714 (67.3%)	5,029 (65.9%)
주요위반 내용	불법 장시간 근로 합계	2,802 (33.0%)	2,848 (37.3%)
	불법 장시간 근로시간	80시간 이상	1,427 (50.9%)
		100시간 이상	868 (31.0%)
		150시간 이상	176 (6.3%)
		200시간 이상	34 (1.2%)
	임금체불	463 (5.5%)	536 (7.0%)
	업무과중에 따른 건강장해 방지조치 미실시	948 (11.2%)	778 (10.2%)
지도 사항	노동시간 측정방법이 부적정하여 지도	1,362 (16.0%)	1,232 (16.1%)

- » 총 8,49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하였으며, 장시간 과도한 업무에 따른 과로사로 산재청구가 있는 사업장이나 청년 취업자의 채용과 해고가 잦은 사업장 등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함. 그 결과, 5,714(전체 67.3%)개 사업장의 노동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함
- »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중점감독 사업장 수가 증가하였고, 법령 위반 사업장 수와 비율이 증가함. 반면 장시간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임금체불도 줄어들어 정책 시행의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 반면, 업무과중에 대한 건강장해 방지조치¹²⁾ 미실시 사업장은 작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했음

✧ 주요 시사점: 일본의 과로사 관리

-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의학적 분석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로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
- 또한, 과로사를 주제로 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과로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으로 개선을 유도함
- 마지막으로 캠페인에 대한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부족한 점에 대한 환류 및 정책 반영으로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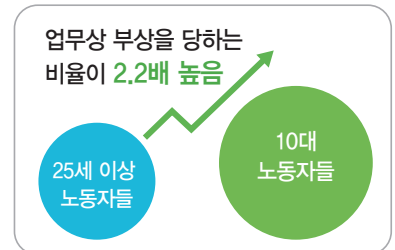
12) 산업의 및 보건관리자 선임, 보건위원회, 건강검진 등

국제, 10대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 첫 단계 : 안전교육의 중요성

노동자에게 첫 번째 직장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습관화하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함¹⁾²⁾

서론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³⁾)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10대 청소년(15세~19세, 이하 10대 노동자)은 150만 명 이상이며, 이들은 5분에 한 명꼴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함
 - » 미국 10대 노동자들의 경우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는 비율이 25세 이상 노동자에 비해 2.2배 높다고 발표
- 프랑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INRS⁴⁾)은 프랑스의 경우 30세 미만 노동자의 산재발생 빈도는 일반 노동자보다 1.5배 높다고 발표
- 10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평생 장애를 감수하고 살거나 인생 목표를 변경해야하는 등 사고 이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10대 노동자의 특징

- 10대 노동자의 경우 경험적·성향적·신체적 측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인 노동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요소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험적 측면

10대 노동자에게 일터는 첫 사회 경험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1) 출처1 : <https://www.safetysolutions.net.au/content/nsca-foundation/news/heightened-miscarriage-risk-for-night-shift-workers-478784084>

출처2 : <https://www.safetysolutions.net.au/content/nsca-foundation/news/protecting-shift-workers-from-heart-disease-105788560>

2) 기사작성 지원 :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박효경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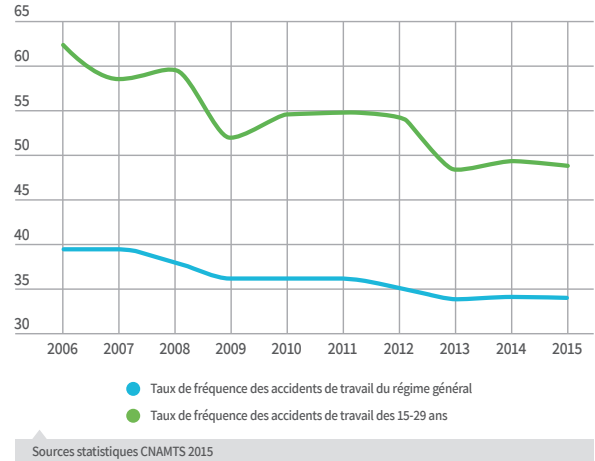
3)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4) Institute National Research Safety

* 프랑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를 기반으로 30세 미만 노동자의 경험 부족에 대한 조사 결과 2015년 프랑스 산업재해의 약 50%가 30세 미만 노동자들의 취업 첫 해에 발생

일반 노동자와 15~29세 노동자 산업재해를 비교⁵⁾

- 일반 노동자 산업재해율
- 15-29세 노동자 산업재해율



성향적 측면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직접 노출되더라도 유능한 성인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

신체적 측면

두뇌는 25세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10대 노동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형성 되지 않을 수 있고, 키나 몸집이 크더라도 여전히 성장 중이기에 성인에 맞춰 제작된 장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생활적 측면

대부분 10대 노동자는 많은 수업량을 소화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생활, 종교 및 취미 활동, 개인 여가 활동 등을 병행하며 시간제 업무에 종사하기에 개개인이 각기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10대 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별 또는 사업주의 역할

- 캘리포니아대학 노동산업보건 공공프로그램(LOHP)⁶⁾ 코디네이터 부시(Bush)는 10대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주의 인식 및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5) 출처 : <http://www.inrs.fr/demarche/jeunes-travailleurs/ce-qu-il-faut-retenir.html>

6) LOHP의 웹사이트 : YoungWorkers.org, 모바일 앱 : Are you a Working Teen

» 또한, 안전을 습관화하여 실제 업무 시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습 훈련을 권장하고 10대 노동자가 업무를 잘 알 것이라고 속단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사회과학자 레베카 구어린(Ms. Rebacca Guerin)은 사업주가 10대 노동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시함

10대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사업주의 지침

- 10대 노동자 고용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주 노동법 습득 및 준수
- 부상 시 대처 방법 설명
- 비상 상황(예 : 화재, 직장폭력,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비
- 개인보호구 사용법 설명 및 실습 훈련 제공 및 지속적인 교육 강화
- 각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시
- 10대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안전 교육 실시
- 10대 노동자를 면밀히 감독,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
- 어떠한 질문 및 제안도 환영하는 열린 의사소통 장려
- 성인 또는 숙련된 동료와 함께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시
- 안전 관련 사례 제시



- 프랑스는 미숙련 10대 노동자(18세 이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정 업종 및 특정 시간에는 고용 금지⁷⁾

» 예 : **업종** 술집, 압력용기·유해물질 취급 업무(용접, 방사선 검사 등), 건설 현장(비계 설치 및 해체 등) 등

시간 밤 시간 대(밤 10시~ 오전 6시 사이)

- 또한 젊은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고양하기 위해 오는 7월, 'MortelTonTaf'⁸⁾를 제작, 방영할 예정이며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관련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

7) 출처 : http://centre-val-de-loire.direccte.gouv.fr/sites/centre-val-de-loire.direccte.gouv.fr/IMG/pdf/0-_brochure_page_presentation_a3.pdf

8) 사이트 : <http://www.mortel-ton-taf.fr>

독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산업안전보건 경향 예측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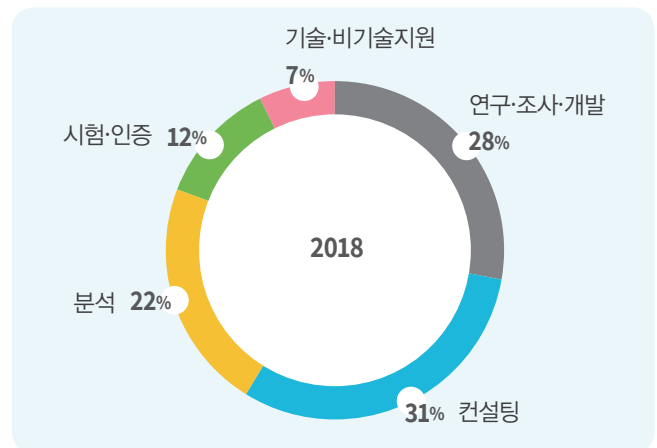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미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예측·연구하는 위험관측소(Risk Observatory)를 통해 2030년의 산업안전보건 경향을 예측하여 발표함¹⁾

서론

-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IFA²⁾)은 독일재해보험조합(DGUV³⁾)의 산하기관으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IFA) 개요

- » **미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및 기술적인 문제 해결
- » **원장**: 디트마르 하이네트(Dr. Dietmar Reinert)
- » **특징**: 2010년 1월 DGUV 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s)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이 바뀜
- » **주요사업**: 연구·개발, 작업환경측정, 규정 및 기준 수립 참여, 컨설팅, 시험 및 인증, 기술지원 등
- » **주요조직**: 원장 산하 핵심본부(3개본부), 실(6개실) 및 부(26개부)로 구성
- » **소재지**: 독일 상트아우구스틴



-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미래에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소를 예측·연구하고 이로 인해 작업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분석·모니터링하기 위해 위험관측소를 구축하고 'It's all about people'보고서를 통해 미래에 영향을 줄 10대 안전보건요소를 발표

1) 출처1 : <https://www.safetysolutions.net.au/content/nsca-foundation/news/heightened-miscarriage-risk-for-night-shift-workers-478784084>

2) IFA, Institute für Arbeitsschutz der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3) DGUV,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업무강도 및 분담 업무량의 증가	숙련된 직원 부족
고령인구의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용
ICT를 통한 네트워킹, 업무가능성 확대 및 감시	소음공해
이동성 증가와 교통량 증가	운동부족
인간공학적 불균형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DGUV 위험관측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10대 안전보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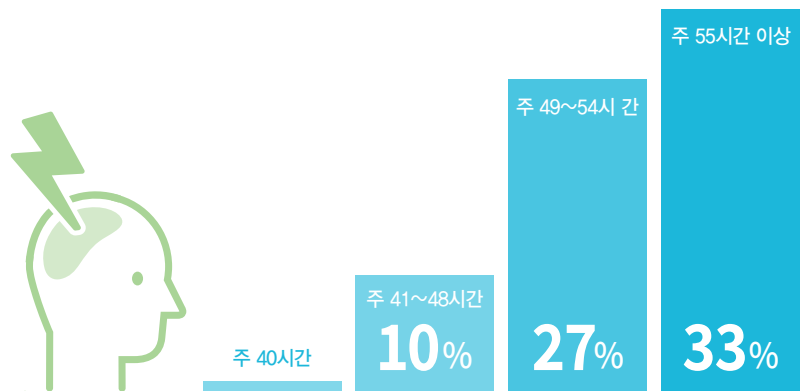
✿ DGUV 위험관측소에서 예측하는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주는 10대 요소*

*편집부는 10대 안전보건요소를 2회에 걸쳐 게재 예정

○ 업무강도 및 분담 업무량의 증가

▶ 오늘날 업무는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처리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음과 동시에 개인 업무 분담이 증가하면서 직장 내 계층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추세

» 개인이 맡는 업무량의 증가는 야근의 증가로 이어지고 야근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



→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와 비교하여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41~4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10%, 49~54시간은 27% 그리고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33% 더 높음

» 또한 과도한 업무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과체중 발생률을 높임

▶ 현대의 업무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탈국경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일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환경을 만들

» 일과 후 업무관련 이메일 열람 노동자 42% (2015년 기준)

▶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는 업무 수행에 자율성을 줌과 동시에 업무 과다를 야기할 수 있음

» 독일 노동자의 45%는 때때로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온다고 답했으며, 주기적으로 집에서 일을 한다는 노동자는 33%에 달함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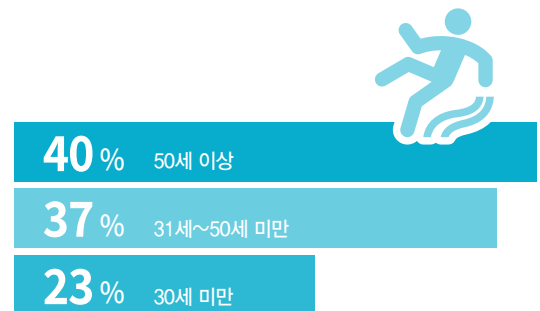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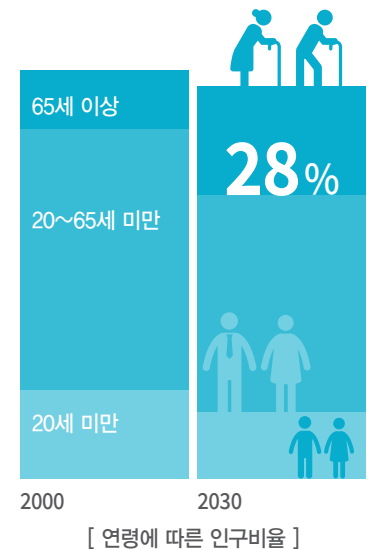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증가

- ▶ 독일 내 인구학적 변화는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2000년 기준 20세 미만 노동자는 21%이상, 65세 이상 노동자는 15% 가량이었지만 DGUV는 2030년이 되면 수치가 뒤바뀌어 20세 미만 노동자는 17%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동자는 28%에 달할 것으로 예측

- ▶ 업무강도의 증가, 운동 부족, 야근, 불완전 고용 등은 노동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는 고령 노동자일수록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며 특히 소음이나 교대업무일 경우 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 고령 노동자의 경우 젊은 노동자에 비해 직장에서의 사고에 더 취약한데 이는 주의부족, 시력 감퇴, 멀티테스킹 능력 저하, 신체적 능력 감소 등이 그 원인임

- » 고령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 젊은 노동자에 비해 치명적인 산업 재해를 겪는 비율이 낮은 반면 경미한 부상에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업무손실일수⁴⁾는 더 많음



○ ICT를 통한 네트워킹, 업무가능성 확대 및 감시

- ▶ 오늘날 디지털화(Digitisation)는 업무의 지평을 넓혔으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음

▶ 긍정적인 영향

- ☑ 산업의 역량 강화 또는 경쟁력 증가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
- ☑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2013년 10%→2020년 45% 예측)
- ☑ 방대한 양의 정보에 빠른 접근이 가능
- ☑ 네트워킹을 통한 사람간의 소통, 업무 및 감시·감독 영역 확장 등

▶ 부정적인 영향

- ☑ 디지털화로 증가한 업무로 부담 과중 및 무기력함 발생
- ☑ 과도한 일의 유입으로 일의 우선순위 선정하기 또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움
- ☑ 운동부족, 시력저하, 근골격계질환, 만성 스트레스 등 건강문제 발생
(노트북 사용자의 5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 호소)



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

❖ 필리핀, 안전한 학교를 위한 납 없는 페인트 사용의 중요성 강조¹⁾

- 필리핀은 매년 진행되는 개학 주간(Brigada Eskwela²⁾)을 맞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 필리핀 퀘존(Quezon)에 위치한 바링가사(Balingasa) 초등학교는 순수 아크릴 라텍스 광택 페인트 제조업체 및 환경단체 에코웨이스트(Ecowaste³⁾)와 협력하여 도색 및 폐기물과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 시행 준수를 촉진
 - » 낸시 애니 바링가사(Nancy Annie)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 교사, 학생, 민간 및 공공 부문 파트너들의 활발한 지원으로 납 중독에서 안전한 페인트(이하 납 안전 페인트) 사용과 생태학적 기준 폐기물 관리 준수로 올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 또한, 에코웨이스트 회원인 아이펜(IPEN⁴⁾)의 활동가 Jeiel Guarino는 납 노출의 안전한 수준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납 노출의 정도가 낮더라도 학습 장애, 언어능력 저하, 지능지수(IQ) 감소와 같은 평생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납 안전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 임산부 및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임

도색 및 폐기물 관련 필리핀 교육부 정책

- 교육부 시행규칙 제4조 :
학교의 납 안전 페인트 의무 사용
- 교육부 시행규칙 제64조 :
독자적으로 납 미함유 도료와 코팅제 인증을 받아야하는 페인트 재료를 포함하여 최소 성능 표준과 사양 규정
- 교육부 시행규칙 제5조 및 생태학적고형폐기물관리법(Republic Act 9003) :
쓰레기 투기 및 소각 금지와 같은 폐기물 방지 및 감축 시행
- 내무부 회람용 보고서 2018-26, 퀘존시 조례 2739-2018 :
에니멜, 유약, 라커, 프라이머, 바니시를 포함한 안전 인증 페인트의 의무 조달 및 사용



1) 출처 : <https://ipen.org/news/lead-safe-paints-healthy-schools>

2) 필리핀 학교에서 새 학기에 학생들을 맞이하는 행사로, 2002년부터 시작

3) 필리핀 환경운동단체 140여개 연합체

4) 'a toxics-free future'를 모토로 유해물질 없는 미래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유해물질 반대 단체

❖ 필리핀 노동부,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법의 중요성 조명⁵⁾

- 필리핀 노동부는 콜센터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리핀 전화상담근로자협회(CCAP⁶⁾)의 제 1차 협회총회에서 콜센터 노동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⁷⁾(이하 BPO산업)과 관련된 법률 3종의 최신 개정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

* 필리핀 내 콜센터 업무 종사 노동자는 2015년 기준 1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⁸⁾

» 필리핀 노동부 근로환경국장 테레지타 꾸꾸에코(Dr. Teresita Cucueco)는 총회에서 관련 법률이 BPO산업과 콜센터 노동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주는 이점과 더불어 신규로 제정된 법률을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Republic Act No. 11058)

» 필리핀 내 모든 노동자의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나 재난 발생 시 고용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 등이 기술

원격통신법

Telecommunicating Act (Republic Act No. 11165)

» 회사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근무 시 지켜야 하는 기준 등을 기술한 법.
집이나 협업 건물 등에서 방해 없이 일할 수 있게 함

» 꾸꾸에코 국장은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합의한 상호정책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 행동강령, 업무수행능력평가, 데이터보안정책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

육아휴직연장법

Expanded Maternity Leave Law (Republic Act No. 11210)

» 최근 개정된 법률로(2019년 2월 20일 승인) 여성은 최대 105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급휴가를 30일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여성들이 출산을 경험하며 받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

* 남자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출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105일에서 일수가 차감됨

5) 출처 : <https://www.ehstoday.com/print/24806>

6) the Contact Cente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7)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콜센터를 포함해 데이터 입력 등 각종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 처리하는 산업

8) 2015년 기준, <https://ccap.ph/philippines-at-a-glance/>

[환경 보존]



친환경 기사 3탄

❖ 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안⁹⁾

- 오늘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수익창출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후 변화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대처 방안 발굴과 관련하여
 - »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수익창출이나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

1

친환경 활동과 접목한 광고 전략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 쓰레기 치우기 캠페인 등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 친화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 및 인식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여주며 이는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 사용 및 타인에게 추천하는데 영향을 줌

사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말아서 쓰레기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고속도로를 입양하세요(Adopt-a-Highway)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투자함과 동시에 광고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가능

2

사업장 내 지속가능성 강화

- » 법률·회계 사무소, 학술 시설, 정부부처 등 문서업무가 많은 곳은 종이 쓰레기를 만드는데 대형 컴퓨터 모니터와 스크린 등에 투자하여 화면에서 편집을 더욱 편리하고 원활하게 만들 경우 복사용지, 복사 토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며 동시에 자원 절약도 가능
- » 이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

3

직원 사기 및 충성도 상승

- » 직원들이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기퇴근 독려나 환경보호활동 우수수행직원을 선발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성취감 등을 느껴 기분 좋은 활동 수행을 함으로써 사기 및 충성도가 높아짐. 이는 업무 성과 창출을 높여줄 뿐 아니라 근속년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신규 채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기업의 자산 보호

- »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 빙하용해와 강력한 슈퍼 허리케인, 산불, 산사태,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의 발생은 기업의 자산에 피해를 주고 많은 복구비용을 투입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이는 기업의 자산 보호를 통한 미래 복구비용 감소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끊임없는 관심 및 환경 보호활동이 필요함을 시사

5

미래 생존 및 성장 역량 확보

- » 탄소 감축 노력 및 친환경 소재 개발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경험과 통찰력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주요 동력이 됨

9) 출처 : <https://born2invest.com/articles/environmental-investment-businesses-competitive>



국제 안전보건 동향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Tel. 052-7030-745 Fax. 052-7030-326 E-mail. overseas@kosha.or.kr

Web(Kr). www.kosha.or.kr Web(En). <http://english.kosha.or.kr>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